

포천사회 知識人 ③7

경북대학 오 명 진 교수

# GIS는 u-City 건설위한 핵심기반 인프라

## “국회의원과 시장이 서로 團結하고 團結하고 協力해야”

“포천시 GIS 기본계획은 10년의 계획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GIS 사업의 수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정책적, 법률적 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전략의 완성시기를 시간적으로 확정하기보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추진 사업간의 선후관계를 명시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천형 GIS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포천시 GIS 기본계획에서 수립되어진 추진전략은 본 계획의 수립기간 중에 이미 정책의 시행이나 사업의 추진이 착수되어진 것도 있으며 포천형 GIS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요구되어지지만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정보화 혹은 디지털화 하는데 기여하는 학문이다. 특히 GIS는 실시간으로 공사현황 파악은 물론 물량 선정, 재해예방과 복구 등에 필요한 학문이다. 홍수 및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GIS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현장 파악이 가능하고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학문이다.

오 교수는 현재 경북대학에서 측량, 응용 측량, 사진측량, GIS 등의 과목을 강의하고 있으며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포천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각종 민원증 토지관련 민원, 예를 들면 도로 굴착, 건축허가 형질변경, 도면 확정에 관한 업무를 전산화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천시 GIS사업에 대해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GIS사업은 직접적인 대민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이며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오 교수는 1984년 시공회사에 입사한 이후 1997년까지 시공회사 4년, 설계엔지니어링 회사에서 10년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자 를 좌우명으로 삼아 학생들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에 대학이 없어 장년, 노년층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경북대학의 큰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오 교수는 봉동초시 도시계획위원, 의정

부시 지역혁신발전협의회 건설교통분과위원장,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 포천시 택지공급기준정책심의위원, 포천시 정책자문위원, 포천시 도시계획위원, 포천시 투자심사위원, 경기도 도시교통심의위원, 경기도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설계(변경)심의위원, 경기도 투자심사위원, 경기도 노선선정자문위원, 포천시 설계자문위원, 포천시 재해영향평가위원,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 의정부시 재해영향 평가위원, 남양주시 재해영향평가위원, 동두천시 투자심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전문관련한 학교행사로는 지난해 건설환경정보사진전을 개최했다. 도로, 철도, 항만 등 절차 사진작품을 전시해 토목공학의 현 주소를 선보이기도 했다.

오 교수는 앞으로 연구계획에 대해 포천시 GIS사업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국가 GIS사업에 선도적으로 포천시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다.

포천신문에 특별히 보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오 교수는 포천의 관광인프라와 축제를 전국에 홍보하여 포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이 지역에서 군대생활을 한 사람들은 아직도 포천이 도로도 없고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생각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지역신문이 지역개발 관련 보도를 해야 한다. 현재 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후순위를 밀려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해 준다면 중앙정부에서 생각을 바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오 교수는 최근 포천시 정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과 시장이 서로 단합하고 단결하고 협력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평가는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포천사람들의 분열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을 포천 발전을 위해 누가 더 많이 가져오느냐가 중요하다. 예산을 가져다가 철도, 도로망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

오 교수는 한국방재학회, 한국도로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도로교통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측량학회, 한국지방공학회,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한국측량학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상은 경북대학 오명진(49) 교수가 2005년 10월 발표한 포천시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 보고서의 결론이다.

오 교수는 서울시 마포초등학교, 대동중학교, 흥익사대부고, 울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강원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를 수료하기도 했다.

1997년 경북대학 건설환경정보과에 부임하여 7년동안 학과장을 역임하며 학과 발전에 큰 노력을 기울여온 오 교수의 전공은 측량·도로·도시계획이며 세부전공은 측량 및 GIS다.

주요 관심분야는 토지이용, 도시계획, 도로, 시공학, 시공관리, 방재, 기타 토목공학 등이다. 측량은 각종개발에 앞서서 토지를 구획정리, 경계를 확정하고 크게는 국가 기간 도로, 철도, 상하수도, 신도시개발 등에 광범위하게 위치결정해서 기안하는 학문이다.

GIS는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국토의 지형을

### “포천발전 위해 정부예산 누가 더 많이 가져오느냐가 중요”



뉴라이트 포천연합 상임대표 내정자 박 용 구

# “葛藤해소 및 지역발전의 큰 틀 마련”

## 봉사활동과 세미나 개최 통한 新대안 모색

뉴라이트 포천연합 발기인 대회가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1일 소흘읍 소재 푸른언덕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기인 대회는 뉴라이트 포천연합 정관심의회를 거쳐 박용구 뉴라이트 청년연합 공동대표를 포천연합 상임대표로 내정했다.

또 뉴라이트 포천연합 창립에 따른 준비위원 위촉 및 예산안 토의를 갖고 명칭을 NRP(New Right Pocheon Union : 뉴라이트 포천연합)으로 확정했다.

박용구 뉴라이트 포천연합 상임대표 내정자를 만나 뉴라이트 연합 추구이념과 포천연합 설립 취지 등에 대해 들어왔다.

▶**뉴라이트 연합은 어떤 단체인가**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건국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국민의 지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국민들 가슴속에 뿌리내려야 한다는 믿음으로 출범했다.

영어의 Right라는 단어에는 크게 3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오른쪽이란 뜻이고, 둘째는 바르다는 뜻, 셋째는 신념 혹은 주장이란 뜻이 있다. 3가지 뜻을 하나로 묶어 표현하면 오른쪽에 선 바른 주장 혹은 바른 신념이란 뜻이 된다. 오른쪽이란 말은 우파 혹은 보수주의를 의미한다. 뉴라이트 운동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가치관 운동, 시대정신 및 문화운동, 애국운동으로서의 민족운동을 말한다.

이같은 운동을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초를 닦고 통일 조국을 건설하는데 주춧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뉴라이트 포천연합은 왜 필요한가**  
포천지역은 우리나라 안보문제와 직결되는 지역에 속해 있다. 즉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천지역은 접경지역이면서도 보수활동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또 포천은 보수주의적 성향이 강하지만 지역과 우리나라를 위해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다.

뉴라이트 포천연합은 지역의 보수주의를 결집시키고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 단체 성격을 갖는다.

▶**뉴라이트 포천연합 추진 일정**  
뉴라이트 포천연합은 지난해 7월 뉴라이트 운동의 동향과 포천연합 창립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8월 23일 1차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은 뉴라이트 포천연합을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10월 20일 뉴라이트 연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12월 20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워크샵을 실시하고, 뉴라이트 운동을 승화시키기 위한 발기인대회 세부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지난 2월 21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갖고 모임정관 등을 확정했다. 오는 4월 초 뉴라이트 전국연합 김진홍 상임의장과 이석연 공동의장을 초청한 가운데 뉴라이트 포천연합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창립총회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박3와 우파성향 정치인 등을 초청할 계획이다.



▶**뉴라이트 포천연합은 어떤 활동을 하는가**  
포천연합 활동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몸으로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불우시설을 방문해 묵욕봉사 혹은 청소, 빨래 등 몸으로 하는 봉사 등을 할 예정이다. 둘째는 지역현안 문제에 관한 안보전문가와 중량감 있는 인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거주 군인들의 포천시민화 운동이나 방호벽 철거 등 포천하면 전방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해소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뉴라이트 포천연합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가**  
포천지역은 보수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출직 공직자들이 사분오열 되어있다. 또 세대간 갈등과 지역간 갈등, 이념간 갈등으로 지역발전의 큰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이념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보수성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념적 통합을 이룬다면 지역의 앞날은 밝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일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연합과 청년연합 등 직능조직과 각 읍면동 지역조직을 갖춘 생각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싹새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뉴라이트 포천연합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뉴라이트 연합을 정치 조직화할 생각은 없다. 만약 정치를 하게 된다면 상임대표직을 사임한 후 선출직 출마여부를 결정하겠다. 또 정관상에도 정치를 할 경우 대표직을 사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포천시장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할지 여부는 차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에게 할 말은**  
뉴라이트 연합하면 생소한 단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보수주의라고 하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보수주의를 Old Right라고 한다면 새로운 개념에서의 보수주의를 New Right로 생각하면 된다. 지역에서 보수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역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단체라고 말할 수 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하승원 기자 forme6@paran.com

# 선진한국의 문을 여는 사람들



## 뉴라이트 포천연합 발기인 대회



뉴라이트 포천연합 경과

- 2006년 7월 초 : 상건례  
뉴라이트 운동의 동향과 포천연합 창립의 필요성 제시
- 2006년 8월 23일 : 제1차 모임  
뉴라이트 정신 확산을 위해 박용구 외 9명 뉴라이트 조직 및 필요성 절감, 조직원 확보 의결
- 2006년 10월 20일 : 제2차 모임(박용구 외 13명)  
12월 중 2박3일 일정으로 워크샵 개최 의결
- 2006년 12월 20일 : 워크샵 개최(박용구 외 15명)  
2박3일 일정, 뉴라이트 운동을 승화시키기 위한 발기인대회 세부계획 논의
- 2007년 2월 21일 : 발기인대회 개최(박용구 외 130명)  
이동호 연사 초청 강연(뉴라이트란 무엇인가?)
- 2007년 4월 초 : 창립대회 개최 예정